

『綺閣閒筆』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김 여 주**

< 目 次 >

I. 서론	III. 題材별로 본 綺閣의 시세계
II. 綺閣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	1. 詩作品 概觀
1. 생애 및 교유관계	2. 시세계
2. 문학적 배경과 문학의식	I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여성작가 綺閣의 한시작품 『綺閣閒筆』 분석을 통해 19세기 중반 여성작가들의 활동상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조선의 신분제는 여성에게 공정하지 않았고, 여성작가들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이 출판되거나 구전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한문학사에서 뛰어난 여성작가들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하였기에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綺閣閒筆』이라는 자료의 발굴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한글 필사본 『기각한필』에는 총 247수의 기각의 시가 실려 있다. 『기각한필』 수록 시들은 분명 한자로 지은 漢詩이지만 한문 원문이 전혀 적혀 있지 않고 한글로만 필사되어 있다. 제목·제목에 대한 풀이·본문·해석이 모두 한글로

* 이 논문은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yjkim@sungshin.ac.kr

만 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성으로 돌아가다”라는 시를 ‘還魯城’으로 적지 않고, ‘환노성’으로 적었다. 한시를 한글음사방식으로만 기술한 『기각한필』의 형태는 기존 여성시인들의 한시문집과는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18세기 이후 여성문인들에게서 보이는 또 다른 문학향유 방식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여성문학 활동상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연구 텍스트로 삼은 『기각한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로,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漢詩로 복원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개별 시 작품의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기각의 생애와 시적 특징을 재구성하고자 한 점, 이후 연구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19세기 사대부가 여성들의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학 활동 양상을 살피고자 한 점이 본 연구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세밀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몰연대가 상세하지 않지만 19세기 여성시인의 활동이 다양했던 시기에 한글음사 방법을 통해 한시를 공유하고자 했던 기각의 활동상을 고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오빠를 비롯한 주변 남성 시인들과의 교류 모임에서 자연스런 시작 일상도 엿볼 수 있었다. 시세계의 특징을 題材별로 분류하여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읊었다고 여겨지던 작품들에서 사물의 내적 속성을 재치 있게 詩化한 詠物詩와 자연의 외적 묘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밝은 심경을 투영한 景物詩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로 七言絶句 형식의 시를 작시함으로써 여성시인들과 함께 공유하며 감상하고자 한 배려도 보인다. 또한 옛 시인들이 지은 시구를 제목화한 작품들에서는 作詩의 형식을 배우려는 시도와 옛 시인들의 감성을 체득하면서 다양한 정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면모가 기각의 시인으로서의 창작 의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각은 다양한 題材의 시화를 통해 시적 재치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고, 다양한 감성의 체득 및 공유를 통해 여성시인으로서의 자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시인 개인의 詩才 표출과 정감 표현의 욕구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대상 시들을 단순한 습작으로 평가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한시를 한글음사방식으로 편집한 것은 여성독자와의 공유를 위한 배려로서 이것은 19세기 여성시인들의 창작활동의 적극성과 일상적 향유의 면모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문집을 『기각한필』이라고 詩話의 성격이 강한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기각의 이러한 시세계 특징과 시인 의식은 19세기 여성시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綺閣, 『綺閣閒筆』, 한시의 한글음사식 표기, 19세기 女性 文學活動

I. 서론

본고는 여성작가 綺閣의 한시작품을 통해 19세기 중반 창작 활동을 했던 여성작가들의 활동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신분제는 여성에게 공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작가들의 활동 반경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작품이 문집으로 출간되어 전해지거나 구전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러나 창작 기반·평가 기회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한국한문학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여성작가들이 분명 존재했으며 자료의 빈곤을 무릅쓰고 그 제한된 자료들을 보다 세밀히 살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각의 『綺閣閒筆』이 여성문학사에서 갖는 자료적 가치 역시 작지 않다 하겠다.

『綺閣閒筆』이라는 한글 필사본 漢詩集에는 총 249수의 漢詩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2수는 오빠 ‘상화’의 작품이기 때문에 기각이 창작한 시는 모두 247수로 보인다. 책에 한문 원문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기각한필』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제목·제목에 대한 풀이·본문·해석이 모두 한글음사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곧, 시의 제목을 한글로 적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제목에 대한 언해가 부기되어 있으며, 시의 원형이었을 漢詩에 대한 讀音만 노출한 후, 그 아래 역시 작은 글씨로 漢詩에 대한 번역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4단계 구성 체제로 한시를 한글음사방식으로만 기술한 『기각한필』의 형태는 기존 여성시인들의 한시문집과는 다른 점이라 주목을 요한다. 이는 18세기 이후 여성문인들에게서 보이는 또 다른 문학향유 방식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여성문학 활동상을 이

해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기각한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로, 임치균·부유섭·강문종에 의해 『기각한필-조선 사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¹⁾이란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에서 임치균 등은 우리 음으로 적혀있는 기각의 시를 그 아래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참고하여 漢詩로 복원해 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각한필』의 서지사항과 자료를 역주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추론하게 된 기각의 생애와 그녀의 시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부유섭·강문종은 『綺閣閒筆』 研究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²⁾.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기각한필』의 서지적 특징과 생애 등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에까지는 연구가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각의 한시 작품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서 그 문학적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복원해낸 기각의 한시를 그녀 시의 원형으로 보고 한시 자체에 집중할 때 기각 한시의 시적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선행연구가 그녀의 생애에 대한 추적을 통해 그녀 작품을 이해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됐다면, 본고는 그녀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각을 이해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당시 여성작가들의 문학 활동상까지 살피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녀의 作詩 경향과 시적 특징에 보다 입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19세기 사대부 여성들에게 공유되었던 문학 활동 양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 1)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임치균·부유섭·강문종 역주, 『기각한필-조선 사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이후 한시를 인용·예시할 때, 문집명은 『綺閣閒筆』이라 명명하고 시의 수록 순서대로 작품에 번호를 붙여서 제시하였다. 또한 기각 한시의 원형적인 한시 작품 자체의 미감에 집중하기 위해서, 논문의 문면에 임치균 등(2015)의 출판본에서 복원한 기각 한시 형태를 준용하였다. 지면을 빌려 역주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2) 부유섭, 강문종, 『『綺閣閒筆』 研究』,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여성 시인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 상황 하에서도 여성시인들은 계층을 막론하고 작품 창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 극소수의 작품들이 후대에 전해져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조선후기 여성시인들의 정체성과 활동상의 편린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 시도하는 『기각한필』 수록 한시 작품 연구는 19세기 여성시인들의 창작활동의 적극성과 일상적 향유의 면모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여 여성문학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II. 綺閣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

1. 생애 및 교유관계

기각의 生沒時期나 家系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만한 자료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이에 선행연구³⁾에서도 추적할 자료를 찾지 못하여 시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이나 지명, 작시 상황 등을 토대로 그녀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기각의 고향은 魯城(충남 논산시 노성면)이고 주 거주지는 靑陽(충남 청양군 청양읍)이며, 가족으로 오빠와 아들, 그리고 조카(姪女)가 있었음을 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시작품에 대한 분석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기타 주변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각의 생애 및 교유관계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다가가 보려고 한다.

기각의 생몰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기각한필』 수록 작품 중에 海居齋 洪顯周의 시⁴⁾에 次韻한 시 10수가 보이는데, 홍현주가 이 시

3)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 『기각한필-조선 사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부유섭, 강문중, 『『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기각한필』에 대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한 연구 성과로, 서지적 특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참고하였음)

를 지은 것이 1809년이라고 하니 이 작품을 통해 기각이 활동했을 시기의 상한선을 잡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록 작품 중 유일하게 창작시기를 명기해둔 「자탄 自歎【甲寅 春의 作詩】」의 갑인년은 185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각한필』의 창작년도를 19세기 중반으로 보는 시각⁵⁾이 있으니, 기각의 생년은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몰년은 최소 1854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39.종형회갑륙수시차운 從兄回甲祝壽詩次韻」에서 “되려 황금 집서 살던 젊은 시절 그리운데, 어느덧 머리카락 모두 세어버렸구나 [尙憶金廬綠鬢年 遽然頭髮盡化銀]”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기각한필』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간적 배경을 청양에 두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錯綜이 의심되기는 하나, 만년의 정조를 띄고 있는 시 1854년 작 「자탄 自歎」이 한시집 후반부(247수 중 230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연대순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시집을 엮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시 작품을 살펴 기각 삶의 궤적을 찾아보고, 가족 친지와 주변 인물들과의 교유상황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 前略 …

離家十載故園尋	집 떠난 지 십 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아오니
人老幽竹不改顏	사람은 늙었어도 깊은 대숲 그대로네
兒輩相見不相識	아이들은 서로 봐도 알아보지 못하니
襁褓如昨已勝冠	강보에 났던 애기 이미 갓을 쓰고 있네 ⁶⁾

日暮北風寒	날 저물고 겨울바람 차가운데
雪程行路難	눈길이라 돌아가기 더 어렵구나 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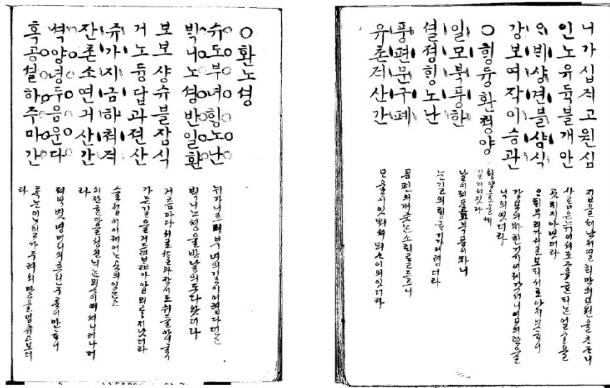
… 下略 …

4) 洪顯周, 『海居齋詩鈔』 「東嘉十詠」 <十七歲作 0己巳(1809년)>

5) 부유섭·강문중(2007)은 앞의 논문에서 「기각한필」의 창작년도를 19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다.

6) 綺閣, 『綺閣閒筆』, 「182. 환노성 還魯城」

7) 綺閣, 『綺閣閒筆』, 「183. 행등환청양 行中還靑陽」



<사진 1> 『綺閣間筆』 원본8)

두 수 시의 詩題에 모두 ‘還’이라 적고 있다. ‘還魯城’은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온’ 노성 땅을, ‘還靑陽’은 다시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작자의 노정을 그렸다. ‘깊은 대숲 그대로인[幽竹不改]’ 고향 땅에서 걸음을 떼어 청양 땅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하필 바람 차가운 밤의 눈 덮인 길이다. 고향을 떠나는 몸도 마음도 더디기만 하다. 두 수의 시만 가지고는 기각이 청양으로 옮겨 간 이유와 10년 만에 노성에 들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婚姻과 歸寧으로 인한 ‘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다만 『綺閣間筆』 수록 시들 안에 남편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전혀 없어 가족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 前略 …

詩禮名家苗裔垂	시와 예로 이름난 집의 자식이요
門戶惟汝一孤兒	문호는 오직 하나뿐인 네게 달려 있다
教無三遷愧爲母	가르치려 세 번 이사 못함 어미로서 부끄럽고
學有六經幸從師	배우기는 육경 들고 스승 좇아 다행이네9)

8) 『綺閣間筆』(編者未詳, 筆寫本, 1冊(77張); 30×21.3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9) 綺閣, 『綺閣間筆』, 「167. 권학증아자 勸學贈兒子」

아들에게 勸學하는 위의 시에서 “孤兒”라는 시어에 의미부여를 한다면 기각이 결혼을 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들에게 詩와 禮를 중시하는 명문가의 자손이니 집안의 명예를 잇는 것은 자식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孟母三遷之教를 배울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그래도 자식이 스스로 스승 따라다니며 배우고 있음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다. 기각은 어머니의 역할이 ‘가르침[教]’에 있음을 인식하였기에, 자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배움[學]’의 길을 열어가서 집안의 학통이 면면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권학시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학문의식이 보인다.

「228.차운 次韻 詩 앞에 오빠인 상회¹⁰⁾가 기각에게 준 이별시 두 수를 실고 「228~229」 두 편의 次韻詩로 답하면서 오빠 상회와의 우애를 보여준다.

蘇妹能詩我愧坡 소매는 시 잘 짓고 나는 동파 부끄러워
陽春下里¹¹⁾入吟哦 고아한 노래 민간 노래 시 읊는데 다 들었네¹²⁾
… 下略 …

十四星霜轉眇間 14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니
來時綠鬚去時斑 올 때는 푸른 살쩍 갈 때는 희끗희끗
兒孫在抱髻垂耳 어린 손자 안으니 다박머리 귀밑에 드리우고
新婦迎門喜滿顏 새 며느리 맞이하니 얼굴 가득 기쁨이네
天理祐賢宜篤厚 하늘이치 어진이 도와 마땅히 돈독하리니

10) 綺閣, 『綺閣閒筆』, 「228.차운 次韻 기각」. (이 시의 앞에 실린 2수 시는 제목 옆에 【상회】라고 적혀 있음. 「228.차운 次韻 기각」·「229.우차운 기각 又次韻 綺閣」 2수 제목 옆에 【기각】이라 쓰고 해석의 서두에 “내 별호. 상회는 오라바님 별호”라는 주를 달았음.)

11) 陽春下里 : 양춘은 옛 노래 이름. 고아하여 배우기가 어려움. 고아한 곡조의 범칭. 하리는 민간의 노래. “양춘은 잘부르는 노래곡조요 하리는 못된 상소리라”(기각의 주)

12) 『綺閣閒筆』, 「별장증매자 상회 別章贈妹子 상회」(‘상회’는 한자로 알 수 없어서 바꾸지 못하였음(번역자 주))

晩年享福正安閑 만년의 복 누림이 정녕코 편안하리
 只緣分手多悵 다만 헤어지게 되어서 서글픔이 많으니
 白日看雲¹³⁾意一般 밝은 날 구름 보며 그리는 맘 다 똑같다¹⁴⁾

여기서 오빠 상희는 동생 기각과의 시 주고 받는 모습을 蘇東坡와 그의 여동생 蘇妹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소동파에 부끄럽지만 동생의 시적 재능은 소매와 같다고 칭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각은 “이제 상희 오라비는 옛 소동파이지만 나는 동파 누이에게 시구 읊음 부끄럽대[今是상희古東坡, 我愧坡妹詩句哦.]¹⁵⁾”라고 화답한다. 서로의 시적 능력을 칭송하면서 시를 수창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又」라고 제목 한 두 번째 시에서는 14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서 기각이 머느리를 맞고 손자를 보는 정경을 기록하면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그려놓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다는 14년의 분기점이 언제인지는 불확실하다. 동생이 노성 본가를 떠난 시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매가 청양에서 함께 보내기 시작한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일 지라도 기각과 상희가 한동안 청양에서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夏日避暑坐風軒 여름날 더위 피해 바람 이는 마루에 앉았더니
 阿坡笑持書卷來 오라버니 웃으며 책을 가지고 오네
 雙子忙拈爭後先 쌍자를 바빠 집어 앞뒤를 다투는데
 兩手如飛眼隨開 두 손이 나는듯하여 눈이 따라 열리더라¹⁶⁾
 … 下略 …

13) 白日看雲 : 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함. 杜甫의 「恨別」 시에, “고향 집 생각하며 달 아래 거닐다 맑은 밤에 서 있고, 아우를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노라[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 함.

14) 『綺閣閑筆』, 「우 又」.

15) 綺閣, 『綺閣閑筆』, 「228.차운 次韻 기각」.

16) 綺閣, 『綺閣閑筆』, 「162.쌍자희 雙字戲」. 쌍자희는 『綺閣閑筆』번역본에 「雙子戲」라고 한자를 달아놓았고 특별하게 전해오는 놀이로는 찾을 수 없었음. 시에서 보면 책에서 雙字를 누가 먼저 찾는가를 내기하는 놀이인 듯 하여 제목의 한자를 「雙字戲」로 수정함

이러한 사실은 위의 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해진다. 더운 여름날 오빠와 뗏마루에 마주 앉아 사이좋게 雙字 찾기 놀이를 하며 내기하는 모습에서 스스럼없이 같이 책을 보며 놀이로 즐기고 있다. 또한「122.남매농작 男妹弄作」과 같은 작품에서는 남매가 詩로 수창하며 지내는 일상이 그려지니 기각과 상회가 일정 기간 청양에서 거주하며 격의 없는 친구처럼 지냈음을 짐작케 한다.

隔年經營一朝成	해 바뀌어 하려던 일 하루아침에 이뤄지니
誰意相逢在青城 ¹⁷⁾	그 누가 뜻 했으리 청양에서 만날 줄을
中間悲歡且休說	그 사이에 기쁨 슬픔 또한 말을 하지 않고
兄弟叔姪各敘情	형제 숙질 서로간의 정을 펼쳐 내고 있네 ¹⁸⁾

綺閣非是愛吟詩	기각이 시를 읊음 사랑하는 것 아니나
與君唱酬興無涯	그대 함께 시를 주고받음에 흥 끝이 없었지
一別遽然今十載	한번 이별함에 어느덧 이제 십년 되었으니
萍鄉 ¹⁹⁾ 此會誰先知	시골 여기 만날 줄을 누가 일찍 알았으랴 ²⁰⁾

첫 번째 시에서 “兄弟叔姪”간의 정이라고 하여 형제 친지간의 만남을 그려놓고 있다. 여기에서의 ‘형제숙질’은 상회 오빠네 가족들과의 상봉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시 「212.贈야운」의 ‘야운’은 從姪 중 하나이나,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 모두 청양 땅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일을 추억하고 그간의 회포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야운에게 준 시에서는 “그대 함께 시를 주고받음에

17) 綺閣, 『綺閣閒筆』, “청양을 청성이라 하나니라”(『기각한필』 작품 중의 한글 주)

18) 綺閣, 『綺閣閒筆』, 「211.발청무지행차운」. (제목에 적절한 한자를 넣을 수 없어서 한글로 둠(『기각한필』 번역자 주))

19) 萍鄉: 중국 袁州의 고을로, 고을의 통칭으로 쓴 듯함.

20) 綺閣, 『綺閣閒筆』, 「212.중야운 贈야운」. (제목에 적절한 한자를 넣을 수 없어서 한글로 둠(『기각한필』 번역자 주); 기각이 從姪이라고 한글 註를 달아 놓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군지 확인되지 않음.)

흥 끝이 없었지[與君唱酬興無涯]”라고 하여 상대가 시를 주고받을 만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綺閣閒筆』에는 ‘금원’이라는 조카와 차운한 시가 6수, 금원에게 준시가 2수 있는데, 이 역시 한글로 적어두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기각한필』을 한문시로 복원해 놓은 연구팀²¹⁾에서는 「110.금원차운 이수 錦園次韻 二首」의 둘째 수에서 “하일삼봉금원둥, 어느 날 비단동산 가운데 서로 만나”라는 轉句의 ‘비단동산[錦園]’이 여성시인 金錦園을 중의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김금원은 14세 되던 해 男裝한 채 금강산을 유람하고 1847년경에는 남편을 따라 한강변 龍山三湖亭에 거처하며 여성문인들과 시작활동을 하면서 시문집 『호동서락기』를 남긴 여성시인이다. 이러한 김금원이 조카로 8수의 시로 차운하고 또 주었으니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대의 여성시인으로서의 동질감에 기인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외의 친지에게 준시로 「39.종형회갑륙수시차운 從兄回甲祝壽詩次韻」과 「217.대종형증딸녀 代從兄贈姪女」가 있는데, 대부분 여성 조카들에게 그녀들의 재주를 칭찬하는 부분에서는 여성의 재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오빠 상회의 행적을 좇아 기각의 家系の 범위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기각은 「241.우음 偶吟」시에서 오빠인 상회가 청양의 고을 원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시 아래의 한글 註에 “이것 이슈는 아파²²⁾가 청양고을노 이실제 지은 거시니라”고 하였다. 앞서 「203.상회부전시 상회赴殿試」시에서 “오순에 유건·도포 몹시도 초췌한데 서울에 이르르면 꽃필 때겠지[五旬巾袍太支離, 洛城去到花發時]”라고 하여 나이 50세에 서울로 殿試를 보러가는 오빠의 모습을 언급했던 것과 연결 지어 보면

21) 부유섭·강문중(2007), 앞의 논문, p.444. 각주15) 참조.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금원=金錦園”의 추정에 동의하여 그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2) 아파(阿坡): 오빠 상회를 이름. 「122.남매농작 男妹弄作」시에서 “아파는 오라바님이 니격의 소동파가 누의와 희롱하였기 비러다 쓰다”라는 한글 주석이 있음.

「241.우음 偶吟」시를 지었을 때가 오빠 상회가 청양고을에 부임하던 때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如君一尉豈成名	그대가 한 고을 원 됨 어찌 이름 이룬 건가
只喜弦歌在武城 ²³⁾	다만 현악기에 맞춘 노래 무성 있어 기쁘군요
白髮相看逢故友	백발로 서로 보니 옛 벗을 만난 거고
青春回憶似前生	젊은 날 추억하니 마치 전생같이 아득하네
山因木脫眞形露	산은 나무 다 떨어져 참모습을 드러내고
月到樓高眞意明	달은 누대 높이 떠서 밝을 대로 밝구나
吾輩俱如秋色晚	우리들도 모두 함께 늦가을 모습 닮아
愁聽天祭雁嘶聲	하늘 끝 날며 우는 기러기 소리 수심겹네 ²⁴⁾

시에서 ‘한 고을의 원이 되었다[一尉]’ 하였고, 한글 주석에서 ‘청양에 있을 때’라 하였으니 오빠인 상회가 청양현감으로 부임을 했던 것이다. 수련의 2구는 공자의 제자 자유가 무성에서 고을을 잘 다스리자 공자가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割鷄, 焉用牛刀]²⁵⁾”라고 하며, 곧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데 어찌 이렇게 큰 도를 쓰느냐²⁶⁾고 한 것에 비유하였다. 기각은 청양을 무성에 비유하고, 오빠 상회를 자유에 비유함으로써 오빠의 大道를 한층 더 높여 칭송하고 있다. 오빠에 대한 존경심과 시인으로서의 재치가 돋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시에 창작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시가 지어진 때를 정확히 짚을 수 없으나 『靑陽邑誌』²⁷⁾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기각의 시 중 유일하

23) 只喜弦歌在武城: 武城은 노나라의 변읍으로, 孔子 弟子 子游가 邑宰였음. 禮樂으로 고을을 다스려 공자가 그 고을에 갔을 때, 絃樂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기뻐하였음. (여기서 무성은 청양을 말함.; 「229.우차운 기각 又次韻 綺閣」의 한글 주에 “니산은 노성 무성은 청양”이라 함.)

24) 綺閣, 『綺閣閑筆』, 「241.우음 偶吟」.

25) 『論語』, 「陽貨」,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莞爾而笑曰, 割鷄, 焉用牛道? …”

26) 『論語』, 「陽貨」, 朱子註, “… 因言其治小邑, 何必用此大道也. …”

27) 李在信(朝鮮), 『公清右道靑陽邑誌』, 「官蹟」, 靑陽郡, 光武10(1906). pp.19-21.

계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 1854년 전후에 청양에 부임했던 현감들을 조사하니 2-3명 정도로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 1854년의 주변으로는 洪羲人(1847~1849)·金尙絃(1850~1852)·朴容鎮(1852~1857)²⁸⁾ 등이 청양현감이었는데 이 중 누구를 특정하여 기각과 연결 지을 수는 없다. 홍희인과 김상현은 李載毅(1772~1823)의 『文山集』에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²⁹⁾, 이 문집은 季子 李建栻(1812~1883)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永川 郡守로 재직 중이던 1870년 9월에 經臺 金尙絃(1811~1890)에게 서문을 받아 활자로 인쇄하였다고 한다. 김상현은 沙溪 金長生의 9대손이며, 丁若鏞·洪奭周·金邁淳의 문인이다. 홍희인은, 『문산집』 권4에 실린 <칠언율시> 모음에 海居齋 洪顯周(1793~?)·泊翁 李明五·東樊 李晚用 부자·愚山 崔憲壽·靄士 洪祐吉·樗園 洪羲人·葯農 洪成模 부자 등과 가을밤에 翠微樓에서 함께 시를 지었다고 제목한데서 보인다. 이로 보면 이들 중 누가 기각의 오빠인지가 해거제 홍현주와의 친분관계로 보아서 홍희인에 가깝겠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문학 활동의 배경이 되어주는 인물들과의 관계망이 엮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장 “문학활동 배경과 문학의식”에서 기각의 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문학적 배경과 문학의식

17~18세기 사대부문학은 그 다양성을 구가하며 혁신을 꾀하기도 하고 서얼시인·중인층 문인들의 활발한 시사활동으로 문호가 개방되는 듯하였다. 이러한 여파는 여성문학에도 일정 영향이 있어서 이 시기의 여성문인들의 활동이 전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남겨진 자료들의 부족으로 몇몇 여성들이 제한적으로 연구되던 것이 여성문학에 대한 자료 발굴과 그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

28) ()연대는 부임기간이다

29) 한국고전번역원, 『韓國文集叢刊』, 『文山集』 해제 참고.

시기 사대부들의 문학 활동이 다양하고 왕성했던 만큼 여성들의 작시와 글쓰기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여성시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士大夫家의 여성들에게서 학구적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사대부가의 전반적 분위기가 딸이라고 크게 다르게 여기지 않았거나 남성 형제들 공부에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에 대해서는 “아녀자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금제하고 있으나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감출 수가 없었던 여성들이다. 부친께서 大丈夫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한하게 했던 徐壽閣(1753~1823)은 뛰어난 정치가면서 학문과 문학에 이름 높았던 연천 홍석주 길주 현주 형제들의 母夫人³⁰⁾이고, 南貞一軒(1840~1922)은 외종사촌 寧齋 李建昌과 유일하게 문학적 소통³¹⁾을 하는 등 모두 사대부가의 여성으로 평생을 주변의 학문과 문학으로 이름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절로 재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여성문인인 金浩然齋(1681~1722)의 경우는 17세기 호서사림을 주도적으로 이끈 동춘당 宋浚吉의 증손부이며, 김호연재의 문집을 한글본으로 필사한 청송심씨는 그녀의 증손부이다. 송준길가의 여성들이 『호연재유고』의 한글 번역본으로 필사암송번역을 통해 한시를 학습함을 보여준다.³²⁾

『의유당관북유람일기』와 『의유당유고』를 남긴 意幽堂 南氏(1727~1823)의 남편 申大孫은 이조참판을 지낸 申昉의 아들이고, 그의 누이이자 의유당의 시누이는 혜경궁 홍씨의 친정 숙부인 洪麟漢에게 출가하여 혜경궁 홍씨에게 언문을 가르친 인물이다.³³⁾ 의유당이 문장을 배울 수 있었고 남편을 따라

30) 줄고, 「令壽閣 詩의 美的 特質」, 『漢文古典研究』 제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31) 줄고, 「南貞一軒 詩世界의 특징」, 『漢文古典研究』 제3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32) 문희순, 「同春堂 宋浚吉家의 여성문학 전통과 문화사적 의의 - 김호연재와 청송심씨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문화연구, 2013

33) 서경희, 「『의유당유고』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감성과 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5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류준경, 「『의유당 유고』의 형성배경과 문학사적 가치」, 『한국한문학회』 제61집, 한국한문학회, 2016

부임지를 유람하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집안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준다. 여성들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창작 의욕은 사대부가의 학문과 문학 활동에 대한 일상적 행위들이 그대로 익숙해져서 드러나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이 19세기 綺閣에게서도 보인다. 생물, 출신배경 등이 자세하지 않지만 사대부가의 여성임이 확실하고, 특히 필사본 한시집 『기각한필』의 체제가 기존 여성시인들의 한시문집과는 다르게 한글음사표기 방식을 쓰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초에 태어나 문학 활동을 전개했던 의유당 남씨의 『의유당유고』에서 이미 그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³⁴⁾ 또한 18세기 초까지 생존한 호연재 김씨의 문집인 『호연재유고』를 19세기 초 청송 심씨에 의해 필사되었다고 추정하는데,³⁵⁾ 호연재 생존시부터 한시 원문의 한글음사표기와 한글번역문을 병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풍조가 18세기부터 있어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여성문인들에게서 보이는 또 다른 문학향유의 방식이어서 이 당시의 여성문학 활동상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종묵은 조선전기 중국시문학 자료, 특히 杜甫詩의 번역에서 시작하여 조선중기 시학의 근원인 『詩經』이 언해되었다고 하였다.³⁶⁾ 그중에는 魚有鳳(1672~1744)의 『詩篇』 혹은 『風雅閨誦』처럼 대체로 부녀의 직분을 중심으로 詩篇을 선발하여 여성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출발하여 조선후기 『古文百選』(金錫靑, 1634~1684)이 18세기경 『고문박선』으로 번역되는데 한문 원문은 적지 않고 원문을 한글 독음으로 적은 다음 번역문을 실는 방식으로 언해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방식은 조선후기 시문집 번역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호연지유고』 『의유당유고』 등에서도 그 전형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상층사족 집안 여성들도 한자로 문자생활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으며 여러 종의 한문으로 된 여성문집이 특수한 상황이라

34) 류준경, 앞의 논문 (2016)

35)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재유고』」, 『한국고전여성연구』 3 한국고전여성학회, 2001

36)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藏書閣 제7집, 2002, pp.61~68 참조

고 하였다.³⁷⁾

이러한 한글음사방식이 대다수의 사대부가 여성문인의 문집들이 한문 혹은 한시로 엮은 것에 대비해 본다면 18세기 이후 문학 중흥의 시기, 다양성의 시기에 편승하여 적잖은 여성시인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때여서 자기표현에 대한 방식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시선으로 본다면 한시를 창작할 수 있는 실력임에도 그것을 우리말로 음사하고 번역을 해서 문집을 엮은 의도는 창작자의 입장과 편자의 입장을 동시에 엿볼 수 있겠다. 창작자 기각의 입장에서 보면 사대부 사이에서 일상화 되고 있는 한시 창작과 감상의 문화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었거나 공유되기를 바라는 지적 열망의 한 표현인 것이다. 문집 편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품을 좀 더 친근하게 알리고자하는 의도와 한시의 감상을 공유하여 여성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자 배려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의 문학적 공유가 일상화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각의 시 형식들이 특히 七言絶句詩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도 창작하여 함께 필사하고 암송하고 감상하기 편리함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기각의 문학적 배경과 문학에 대한 생각들이 사대부가의 여성으로서 사대부들과 주변 사람들, 여성들과의 일상적 관계 혹은 교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작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罷接>시에서 기각을 비롯한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三夏同硯今將歸	여름 석 달 글공부를 함께 하다 돌아가니
君我別懷常依依	그대와 나 이별 회포 할 때마다 아쉽구나
仲秋月下當復會	중추의 밝은 달 아래 응당 다시 모이겠지만

37) 이종목, 앞의 논문 (2002) pp.69~73 참조. 각주27)에서 몇몇 여성작가들의 한문 문집의 경우를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함.

尺書先寄雁南飛 남쪽 가는 기러기 편에 편지 먼저 부쳐야지³⁸⁾

長人宅中小書樓	어르신 계신 댁에 글 배우는 누대에서
君我同學不暫休	그대와 나 함께 배워 잠시도 쉬지 않았지
門前雲山面面出	문 앞에 구름 산엔 산마다 구름 덮였고
林外石澗曲曲流	숲 저 너머 바위 시내 굽이굽이 흐른다
開硯石榴花發時	석류꽃 피는 때 공부를 시작하여
分袂梧桐葉落秋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에 이별하네
萍鄉蹤迹離還合	작은 시골 자취들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
明年重尋此日遊	내년에 다시 이날 놀이 찾아 올테니까 ³⁹⁾

‘파접’은 지난날 글을 짓거나 독서의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던 일을 뜻하는데 두 차례 시를 통해 그 상황을 표현하였다면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받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첫 수의 “여름 석달[三夏]”와 둘째 수의 “석류꽃 피는 때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石榴花發時梧桐葉落秋]”에서 동시에 석 달이라는 시간적 제시까지 하고 있으며 가을의 모임, 내년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문인들에 대한 기록이 수적으로 많아지면서 각 기록의 분량이 길어지고 내용이 풍부해졌다면서 西堂 李德壽(1673~1744)의 문집인 『西堂集』에 실려있는 「先妣行錄」에서 어머니 청송 심씨의 교육, 독서, 글쓰기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⁴⁰⁾ 더불어 다방면의 여성 글쓰기의 충위를 서술하면서 18세기 양반여성 글쓰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한글 혹은 언문으로 口授되고 기록되어 오던 것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사대부가의 일상적 문학 활동 자장 안에서 여성의 활동도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8) 綺閣, 『綺閣閒筆』 「8.파접 罷接」

39) 綺閣, 『綺閣閒筆』 「168.파접 罷接」

40)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충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이러한 여성들의 문학 활동은 조카로 추정되는 錦園⁴¹⁾에게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湖東西洛記』에서 한강변 용산을 중심으로 雲楚, 瓊山, 고향친구인 竹西, 자신의 동생 鏡春을 주요 구성원으로 詩會(三湖亭詩社)를 가지면서 다섯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詩才를 認知하고 자부심에 가득 차서 노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²⁾

愛君閨中擅文華	그대 규중에서 문장 재주 펼침을 사랑했더니
不讓班蔡 ⁴³⁾ 兩大家	반희 문희 두 대가에 결코 뒤지지 않아서네
送來新詩盡驚人	보내온 새로운 시들이 다 사람을 놀라게 하니
一吟芳香滿頰牙	한번 읊매 꽃다운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다 ⁴⁴⁾

蔡女蘇妹可並名	채문희 소매와 이름 나란히 하니
紅閨青燈照眼明	붉은 안방 푸른 등잔 눈에 비쳐 밝구나
寧不吟詩吟必奇	차라리 시 읊지 않을지언정 읊으면 반드시 기이하니
幾將新句使人驚	몇 번이나 새 시 지어 사람들을 놀래게 했나 ⁴⁵⁾

위의 두 편의 시에서 각각은 金원을 漢代의 班固의 여동생으로 반고의 『漢書』를 마무리했다는 班昭와 채옹의 딸로 음률을 잘 아는 여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蔡琰, 蘇東坡의 동생 蘇妹에 비겨서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삼호정 시사를 이끌며 여성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金金원의 시적 재능을 높이면서 자신의 여성 시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내비치는 방식임을 엿볼 수 있다. 다른 여성 조카에게 준 시에서도 “기각이 시를 읊음

41) 본고 “1. 생애 및 교유관계” p.11 참조.

42) 줄고,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Ⅱ-金錦園의 詩와 文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43) 班蔡: 班昭와 蔡琰. 기각의 한글 주에 “반은 班固의 딸(누이의 착오) 소요, 채는 채옹(蔡邕)의 딸 문희로 여성문장대가<後略>”라고 되어 있음

44) 綺閣, 『綺閣閒筆』 「45. 증금원 贈錦園 (족하딸-기각의 주)」

45) 綺閣, 『綺閣閒筆』 「110. 금원차운이슈 錦園次韻 二首(달녀-기각의 주)」

사랑하는 것 아니나 그대 함께 시를 주고받음에 흥 끝이 없었지[綺閣非是愛吟詩 與君唱酬興無涯]⁴⁶라고 하여 시재를 갖추고 있어서 함께 끝없는 흥을 시로 주고받았다는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시모임이나 놀이의 상황을 읊은 기각의 시에서 보면 분명히 남성들과의 모임이라고 짐작되는 데도 문학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게 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峽天雲散雨新晴	골짜기 하늘 구름 흩어지고 막 비 개어
祇樹繁陰始聞鶯	절 나무 녹음 짙어 피꼬리 소리 처음 들린다.
前溪鴨浮春水暖	오리 떠있는 앞 시내엔 봄물은 따뜻하고
西林風穩午日清	바람 평온한 서쪽 숲엔 햇살이 맑구나
烟外裊裊柳絲織	안개 너머 간들간들 버들가지 실로 짠 듯
窓前灼灼榴花明	창 앞에 붉고 곱게 석류꽃이 환하구나
미山清遊誰管領	매미산 맑은 놀이 누가 주관 하였는가
知是使君暫主盟	알겠도다 잠시 원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⁴⁷

… 前略 …

寶氣玲瓏筆下睡	보배 기운 영롱하게 붓으로 써내고
春色爛漫樽前顏	봄빛은 술잔 앞 얼굴에 가득하다
七才子詩成雅會	시 재주꾼 일곱 사람 우아한 모임 이뤘으니
疑是雪樓 ⁴⁸ 在此間	아마도 설루 있던 자리가 여긴가 싶네 ⁴⁹

첫 수에서 보면 장곡사의 모임이 비가 막 개이고 석류꽃이 활짝 핀 봄

46) 綺閣, 『綺閣閒筆』, 「212.증야운 贈야운(종질·기각의 주)」.

47) 綺閣, 『綺閣閒筆』 「163. 회유장곡사 會遊長谷寺」 “장곡절의 모다 매미산과 운학 누워서 노는 것 이슈 차운하다”라고 한글 제목이 있음.

長谷寺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칠갑산에 있는 절

48) 雪樓 : 명대 李攀龍의 書室 白雪樓를 준말로 이반룡을 가리킨다. 明 世宗 때 李攀龍이 李先芳·謝榛·吳維岳·王世貞 등 七人들과 詩社를 결성하고 일대를 풍미하여 소위 王李之學이라는 이름으로 詩文에 있어 당대의 宗匠이었다.

49) 綺閣, 『綺閣閒筆』 「164.우차운 又次韻 (163.회유장곡사 會遊長谷寺)」

이 무르익은 날에 모였다면서 “淸遊”의 주관자가 고을 원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164.우차운 又次韻」 시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문학적 활동이 “寶氣玲瓏”하다고 하면서 중국 明代의 최고 학자 문인들의 모임에 비겨서 “雪樓의 七才子”들의 모임이라 칭송하고 있다. 「241.우음 偶吟」 시에서 오빠 상회가 청양 원님으로 부임해 왔다⁵⁰⁾고 했는데 그 기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을 원님의 주관으로 7인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이며 綺閣도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시를 짓고 있다.

才子詩客會南州	재주꾼 시 짓는 이 남방 고을 다 모이니
未久輕肥京洛遊	머지않아 호사한 차림으로 서울에서 노닐리라
拄笏爽氣山雨霽	홀(笏)로 턱 괴자 시원한 기운드니 산비가 개서고
揮塵淸談樽酒酬	총채 흔들며 청담 나누며 술잔을 주고 받네
谷谷碧溪別有界	골짜마다 푸른 시내 별천지 따로 있고
處處紅林又是秋	곳곳마다 붉은 숲은 또한 바로 가을이라
淸風明月皆吾友	맑은 바람 맑은 달이 모두 다 내 벗이니
與爾同燒萬古憂	너와 함께 만고의 시름 태워버리리 ⁵¹⁾

위의 시는 「169.우음 偶吟」으로 시작하여 지은 11수 중 10번째 시로, “재주꾼 시 짓는 이 남방 고을 다 모이니 머지않아 호사한 차림으로 서울에서 노닐리라[才子詩客會南州 未久輕肥京洛遊]”고 하여 청양에 모여 있는 才子詩客들을 칭송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홀로 턱을 괴다[拄笏]”이라 하여 관아에서 먼 산 바라보며 한가한 관직생활을 즐겼다는 썬 왕휘지의 고사⁵²⁾와 晉代에 淸談家들이 썼다는 “먼지털이[塵]”를 흔들며 청담을 나누며 술잔 주고받는다는 표현을 통해 함께 모여 시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모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온 골짜기 다 별천지이고 울긋불

50) 본고 “1. 생애 및 교유관계” p.12 참조.

51) 綺閣, 『綺閣閒筆』 「178.기십 其十 (偶吟)」

52) 拄笏 : 홀은 手板을 가리킨다. “王子猷作桓車騎參軍 桓謂王曰 卿在府久 比當相料理 初不答 直高視 以手板拄頰云 西山朝來 致有爽氣” 劉義慶, 『世說新語』 「簡傲

곳 가을이며 청풍명월 벗 삼아서 만고 근심 남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당시에 청양에서 시모임의 구성원들이 상당한 才士였으며 그 모임에 기각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시인으로서의 인정인지 지인으로서의 자격인지 그 저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생애에서 살펴본 『靑陽邑誌』에서 19세기 중반에 부임한 현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각의 이러한 정황들이 그리 과장은 아닌 것 같다. 위 시에서 보이는 모임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각한필』에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는 1854년 주변의 赴任한 현감들은 洪義人, 金尙鉉, 朴容鎭 등이다.⁵³⁾ 김상현은 沙溪 金長生의 9대손이며, 丁若鏞·洪奭周·金邁淳의 문인으로 『문산집』 서문 외에도 三觀子 兪莘煥의 『眉山集』에 보면 “경대 김공 상현에게 선비의 묘지명을 써달라고 올리는 편지[上經臺金公尙鉉 乞先妣墓誌書]⁵⁴⁾ 등에서 보듯이 문명이 있었던 인물이다. 홍희인의 경우는, 『문산집』 권4 <칠언율시> 모음에 작가가 洪顯周를 비롯해서 洪義人, 洪成模 부자 등 7인과 가을밤에 翠微樓에서 함께 시를 지었다고 제목한데서 보인다. 1831년 정월 중순에는, 홍현주의 별서인 청량산방에서 홍현주, 윤정진, 李晩用, 丁學淵, 洪義人, 洪成謨, 草衣 등 7인이 모여 시회를 열었다.⁵⁵⁾는 기록도 보인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으로 보면 앞 장의 “1. 생애 및 교유관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 중 누가 기각의 오빠인지가 홍현주와의 친분관계로 보아서 홍희인에 가깝겠다. 우연찮게도 홍현주와 홍희인의 시모임의 구성원이 7인이고 기각 시에서 靑陽의 시모임에서의 구성원에 대한 칭송에서도 “雪樓의 七才子”라는 표현에서도 홍희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더 기울여진다. 그러나 기각 작품에서 洪顯周의 시⁵⁶⁾에 次韻한 시 10수가 보인다는

53) 본고 “1. 생애 및 교유관계” pp.13 참조.

5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眉山集』 제5권

55) 洪顯周 『靑涼山房雅集詩卷』, 한국중앙연구원 자료 참고

56) 洪顯周, 『海居齋詩鈔』 「東嘉十詠」 <十七歲作 0己巳(1809년)>

綺閣, 『綺閣閑筆』 「184. 송간명월 松間明月」~「193. 소루분향 小樓焚香」

것 외에는 흥현주나 또는 흥희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문학 활동의 배경이 되어주는 인물들과의 관계망이 엇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교유관계를 살피는 것은 기각의 주변 인물들의 영향이 기각에게도 적지 않은 문학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기각이 여성시인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각이 여성으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들 남성 才士들과의 모임에서 시를 창작할 수 있었다는 데서 여성시인의 일상화된 시 짓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Ⅲ. 題材별로 본 綺閣의 시세계

1. 詩作品 概觀

『기각한필』에 실려 있는 시작품은 오빠 상희의 시 2수를 합해서 總 223題 249首이고 기각의 작품은 221題 247首이다.

詩作品 形式은,

詩 形式	篇首
五言絶句	21
七言絶句	175
七言律詩	46
七言古詩	5
상희(오빠)作	2
합계	249

위 표에서 보듯이 칠언절구시가 175수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기존 유명작가의 시작품에서 시 구절을 제목으로 가져와서 시를 지은 47題 49

首의 경우에도 모두 七言絶句로 지었다. 高八美⁵⁷⁾는 唐代 절구가 광범위하게 유행되어 회자되는 詩歌라고 하면서 李重華의 『貞一齋詩說』에서 “唐詩에다 곡을 넣을 때는 칠언절구를 많이 이용하였고 그 시가들이 이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 “칠언절구는 당나라 사람들의 악장에 이르러 공교한 것이 가장 많다”⁵⁸⁾는 말을 인용하면서 절구가 음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우성선생이 고려말 口傳의 俗謠들을 七言絶句의 詩形式에 담아낸 <小樂府>를 고찰하면서 “盛唐의 유명작가들의 칠언절구가 往往 梨園의 弟子나 妓女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한 것도 노래하기 편리하다는 것에 중점을 둔 설명이다. 특히 王維의 「送元二使安西」의 “西出陽關無故人” 一絶은 樂府의 絶唱으로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까지 널리 전해오고, 고려시대 鄭知常의 「送人」 “大同江水何時盡” 一絶도 역시 七言絶句로서 후세까지 절창으로 “海東의 渭城三疊”으로 칭도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⁵⁹⁾ 이로 보면 칠언절구는 많은 시인들이 애용하는 시 형식으로 짧은 시 형식 안에 명편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음악적 특징 때문에 시를 함께 지으면서 공유하고 외우면서 감상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기각에게 칠언절구라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음악성이 강한 시형태가 매우 많다는 것은 시 쓰기에 대한 욕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면서 시 짓기의 생활화인 것으로 보인다. 기각시의 題材가 일상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읊어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것을 한글음사표기 방식으로 표현해 낸 것은 주변 여성들과 시를 함께 필사하고 암송하며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배려인 것 같다. 문학적 배경에서도 서술하였듯이 18세기 이전부터 이미 한글 음사를 써서 시도 쓰고 문장도 써왔던 것은 여성들의 지적 욕구가 그만큼 높았던 것이며 그것들

57) 「중국근체시법론(절구)」, 『中國學』, 第29輯, 대한중국학회, 2007.12. pp.71~72 참조.

58) 高八美, 앞의 논문(2007) pp.71~72. 재인용. 李重華(1736 전후), 『貞一齋詩說』 “唐詩入樂 多用七言絶句 詩歌亦往往由此得名” “七絶乃唐人樂章 工者最多”

59) 李佑成, 「高麗末期의 小樂府」, 『韓國漢文學研究』 제1집, 1976. pp.9~10

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주변 환경이 열려있었던 것들에서 알 수 있다.

기각의 시문집을 『기각한필』이라고 詩話의 성격이 강한 “閒筆”의 이름을 붙인 것도 시 짓기의 일상화와 시 모임 활동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시구마다 朱墨과 靑墨으로 잘된 곳은 貫珠나 批點을 치고 있다. 제목을 짓는 것도 비점 등을 통해 비평작업을 가한 것도 기각 자신이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들에서 시를 읊고 함께 암송하며 평가하며 공유했을 것이라는 저간의 분위기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2. 시세계

綺閣 詩는 칠언절구의 형식으로 일상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선택해서 읊은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세계의 특징을 제재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49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명시인의 시구로 제목을 삼아서 지은 시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각이 대상으로 삼은 題材들을 보면 “西瓜·水中月·盤石·燕巢·蒼蠅” 등등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이다.

대략 120餘首에 이르는 시들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기각의 시선을 詠物 詩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詠物 詩를 제외하고 그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계절과 연관된 題材들이다. 이들은 각 계절의 경관들과 연계되어 있고, 偶吟이라는 제목의 시들도 계절과 연계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을 景物 詩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중국 유명시인의 시구로 제목을 삼아 시를 지은 작품들을 모아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題材별로 본 시적 특징

(1) 일상을 제재로 한 詠物 詩

기각의 시들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물들을 끊임없이 읊고

있다. 풍경, 사물을 읊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읊는 방식을 택한다. 사물에 대한 긍정적 관찰과 표현을 통해 사물들의 모습을 밝게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대상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나 故事를 인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물을 보고 형상화하는 방식이 사실적이면서 재치가 있다. 역동적 대상물을 그려내면서 그 기상을 동경하기도 하여 여성시인의 면모가 크게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일상에서 가깝게 보는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사실적이면서도 재치 있게 읊은 작품을 우선 본다.

三眠老大南風時	세 번 자고 다 자라니 남풍 불어 올 때라
夢裏經綸在樹枝	꿈속에서 자며 잔 실 나뭇가지 덕분이라
堪笑蜘蛛網還疏	거미줄이 도리어 성기어서 우스우니
藏身巧結腹中絲	몸 감추고 배속 실로 공교롭게 맺었구나 ⁶⁰⁾

누에가 고치 집을 만들며 명주실을 켜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남풍 부는 봄날에 뽕나무 잎 덕분에 세 밤 자는 동안에 배속 실로 “공교롭게 잔 실 [巧結]을 거미줄에 비교한 것이 재치 있고 신선하다. 대상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며 섬세하다. 선달 눈 속에 핀 매화를 읊은 시에서도 “복사꽃 오얏꽃의 붉은 뺨을 어찌 헤아릴까 비단 창서 바라보니 옥 같은 얼굴 일세[桃李紅頰何足數 綺窓相對如玉顏]⁶¹⁾”라고 화려하고 붉은 미인 얼굴의 도리보다는 흰 눈 속에 옥 같은 얼굴의 매화가 더 고결한 모습이라고 비유의 묘를 살리고 있다.

다음 시는 방에서 독서 하는 모습을 바깥에서 보는 각도에서 그림자 실루엣을 읊었다.

60) 綺閣, 『綺閣閒筆』, 「20.잠작견 蠶作繭」

61) 綺閣, 『綺閣閒筆』, 「48.납설매 臘雪梅」

形隨其影影隨形	형상은 그림자 따르고 그림자는 형상 따라
坐臥行止同平生	앉고 눕고 가고 멈춤 평생을 함께 한다
對燭讀書咿唔時	촛불 마주하여 책보며 소리 내어 입을 때
但見動脣不聞聲	다만 입술 움직일 뿐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⁶²⁾

위의 시와 마찬가지로 起句, 承句에서는 그림자의 본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한다. 그리고는 轉句, 結句에서 그림자가 시인에게 주는 독특한 인상을 재치 있게 그려낸다. 그림자 실루엣으로 보자면 입모양만 따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칠언절구시의 짧고 리듬 살릴 수 있는 형식적 장점을 활용하여 “形”과 “影”자의 운을 잘 살려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시적 운치를 즐길 수 있게 작시하고 있다.

上下平田廣野中	위아래로 평평한 밭과 넓은 들 가운데
秋外秋色大麥黃	가을 밖 가을빛인 대맥이 노랗구나.
恰如禾熟又不熟	홉사 벼가 익은 것 같아서 또한 덜 익었으니
疑是八月金風涼	아마도 팔월에 부는 서늘한 가을바람인가 보다 ⁶³⁾

“보리가을[麥秋]” 곧 보리 추수를 읊은 것이다. 가을 끝자락에 심어서 여름에 추수하는 보리지만 추수는 곧 가을을 상징하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시 안에 재치 있게 그려져 있다. “秋外秋色” “禾熟又不熟”에서는 글자의 소리에서도 리듬감을 살리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도 반전의 묘를 살리면서 여름이지만 추수하는 때이니 서늘한 가을바람 때문에 덜 익었나보다고 흥치를 돋운다.

때로는 사물들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기상을 동경하는 듯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세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62) 綺閣, 『綺閣閒筆』, 「46.영자 影子」

63) 綺閣, 『綺閣閒筆』, 「80.맥추 麥秋」

… 前略 …

一噴雷電作雲雨 우레 번개 한번 뿜어 비구름을 만들어
飛騰九天變化神 구천을 날아 솟구치니 변화가 신통하다⁶⁴⁾

猛虎窟宅深山中 맹호 사는 동굴은 깊은 산속에 있으니
一嘯兩膝自生風 한번 울부짖으니 두 무릎서 바람 일어난다
咆哮百獸皆恐懼 으르렁 포효에 모든 짐승 두려워하니
堂堂威風眞英雄 당당한 위풍은 진짜 영웅이로구나⁶⁵⁾

위의 두 시는 “신룡”과 “맹호”를 읊으면서 각각의 동물 특징에 맞추어 역동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기상을 칭송하고 있다. 다음 매를 그린 시에서도 실제로 눈앞에 보는 듯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과 기상을 그려 놓고 있어서 여성시인의 면모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深樹叢林幾數饑 깊고 우거진 숲에서 그 얼마나 굶주렸나
輕翰一舉雲頭飛 가벼운 날개 한번 치니 구름 끝에 날아오른다
低回乃下攬山鷄 낮게 휘휘 돌다가 곧바로 꿩 움켜 채니
尖喙利爪奮其威 뾰족한 부리 날카로운 발톱 그 위엄 떨친다⁶⁶⁾

다음 시는 한밤중 방안을 밝힌 촛불을 읊은 시다.

五更叢花一枝紅 새벽녘 떨기 꽃이 한 가지 붉었는데
燭影輝煌滿房中 촛불 그림자 휘황하여 방안에 가득 찼다
惟與白月同皎皎 오직 흰 달과 더불어 한가지로 맑고 밝아
照耀明光長天通 밝은 빛이 빛나서 긴 하늘로 통하였네⁶⁷⁾

64) 綺閣, 『綺閣閑筆』, 「22.신룡 神龍」

65) 綺閣, 『綺閣閑筆』, 「23.맹호 猛虎」

66) 綺閣, 『綺閣閑筆』, 「51.응 鷹」

67) 綺閣, 『綺閣閑筆』, 「27.촉화 燭火」

단순히 방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하늘과 통하는 빛이라서 흰 달과 함께 맑고 밝다는 것은 촛불 빛의 밝음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은연 중에 드러난다.

萬里長天無點雲	만리 뻗은 넓은 하늘 한 점 구름 없으니
星宿蕭森十二分	열두 구역 하늘 가득 별들이 뻑뻑하다
箇箇光芒燭地明	총총한 별들이 땅을 비취 밝으니
災祥由汝動乾門	길흉 징조 너로 인해 하늘 길이 열리겠네 ⁶⁸⁾

結句에서는 이렇게 밝은 별들이 땅을 비취 밝아서 길흉의 징조를 낱낱이 밝혀준다는 의미와 별들을 보며 길흉징조를 살펴보았던 일관의 역할의 이중의미를 갖게 맺었다. 밝은 빛이 갖는 의미가 맑고 밝은 세계를 추구하는 기각의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不借輕翰高於鶯	가벼운 날개 빌지 않아도 솔개보다 더 높이나니
千尺繭絲手中連	천 자 길이 명주실이 손안에서 이어졌다
靑山過去一片雲	푸른 산을 지나가는 한조각 구름 같아
乘風直上萬里天	바람 타고 만리 하늘 위로 곧장 올랐구나 ⁶⁹⁾

兩翼自生風翩翩	두 날개에 절로 바람 일어 훨훨 날더니
頃刻遠去雲一邊	눈 깜짝할 새 멀리 구름 끝에 닿았구나
日日飛飛幾繞樹	날마다 날고 또 날아 몇 번이나 나무숲을 돌았는가
得意翱翔萬里天	뜻을 얻어 만리 하늘 휘휘 높이 떠다니네 ⁷⁰⁾

높이 나는 새, 종이연 등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자유로움과 하늘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자신의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적이어서 자기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있

68) 綺閣, 『綺閣閒筆』, 「25.성신 星辰」

69) 綺閣, 『綺閣閒筆』, 「70.지연 紙鸞」

70) 綺閣, 『綺閣閒筆』, 「26.비조 飛鳥」

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역동적인 기상을 동경하며 밝은 빛을 통해 자유를 구가하고자 하는 의식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도 주로 칠언절구시 형식을 통해 쉽게 읊으면서 함께 공유하기 쉬운 시 창작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계절·비 등을 제재로 한 景物詩

앞에서 사물을 주로 읊은 시에서 보았듯이 기각의 시에는 감상적인 정감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심지어 고향 그리움을 읊은 시에서도 감상적 정감의 표출이 그리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상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자신이 느끼고 받은 그 인상을 형상화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를 지어서 읊고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쪽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고향을 오가면서 고향을 題材한 시가 4편인데 여기서 기각의 감성적 특징이 드러난다.

誰道婦女行路難	누가 말했나 여인네 길가기 험난한 걸
百里魯城半日還	백리 길 노성까지 만나절에 돌아왔네
… 中略 …	
夕陽嶺頭陰雲多	저문 해 속 산마루에 흐린 구름 많으니
或恐雪下駐馬看	혹여 눈 내릴까 가던 말을 멈춰 본다
離家十載故園尋	집 떠난 지 십 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아오니
人老幽竹不改顏	사람은 늙었어도 깊은 대숲 그대로네
兒輩相見不相識	아이들은 서로 봐도 알아보지 못하니
襁褓如昨已勝冠	강보에 싸던 애기 이미 갓을 쓰고 있네 ⁷¹⁾

십년 만에 고향 길을 가면서도 여인네의 길가기가 힘겹기는 하지만은 만나절 만에 도착하고 있다고 뿌듯해 한다. 겨울 무렵이라 눈 내릴까 걱

71) 綺閣, 『綺閣閒筆』, 「182. 환노성 還魯城」

정하면서 10년이란 세월 속에 사람은 변했어도 예전과 변함없는 대숲에 반가운 눈치다. 다음 시는 다음 해에 다시 다니러 왔다가 청양으로 돌아가면서 쓴 시인 것 같다⁷²⁾.

行行半日到滄江	반나절 가고 가서 창강에 이르러니
落葉蕭蕭初飛浦	쓸쓸한 낙엽이 처음 나무에 날리네
平沙如練雲欲暗	평평한 모래톱은 비단 같고 구름 어두워져
尋店暮入寒天雨	저물녘 객사 찾아드니 하늘에 찬비 가득 ⁷³⁾

을씨년스러운 가을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 모습으로 실경을 그대로 그리면서 자신의 쓸쓸함을 대변하고 있다. 비단같이 환한 모래톱과 어두워지는 구름과의 대비로 쓸쓸하지만 감상적이지 않고 담박함이 느껴지게 한다.

詠物詩를 제외하고 그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계절과 연관된 題材들이다. 이들은 각 계절의 경관들과 연계되어 있고, 偶吟이라는 제목의 시들도 계절과 연계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계절 중에는 “가을 秋”을 읊은 시가 많은데,

碧落無雲淨如拭	푸른 하늘 구름 없어 맑게 닦아 놓은 듯
但有明月到天心	밝은 달만 하늘 중앙 높이 떠올라
秋月明又秋風清	가을 달은 밝고 가을바람 또한 맑아
淡淡正如幽人襟	담박하기 바로 숨은 이의 맘과 똑같다
河漢西流星斗轉	은하수 서쪽으로 북두성에 옮겨가고
露結草端夜已深	풀끝에 이슬 맺혀 밤은 이미 깊었구나
良宵會友須盡醉	좋은 밤에 친구 모여 모름지기 술 취할 뿐
一壺自傾頻頻斟	술병 질로 기울어져 자주 잔질하게 되네

72) 綺閣, 『綺閣閒筆』, 「155.우 又(154.강행환청양 江行還靑陽) “去年過時江雪白 今日看來霜葉紅 지난해 지날 때 강가에 눈 희더니 오늘 보니 서리 맞은 나뭇잎이 붉었구나”라고 읊고 있다. 이로 보면 詩 編次에 시기별 착종이 보임

73) 綺閣, 『綺閣閒筆』, 「154.강행환청양 江行還靑陽」

… 中略 …

萬戶長廊爭擣衣	집집마다 행랑채선 다듬이질 다뒤편하고
天家深閨各持針	집집마다 깊은 규방 바느질로 바쁘테지
井梧婆娑兩三枝	우물가에 벽오동엔 두세 가지 하늘거려
山窓掩映滿疎陰	산속 집 창 은근 비취 성긴 그늘 가득하다
清宵佳景愜詩情	맑은 밤 고운 경치 시 쓸 맘에 꼭 맞아서
不知霜露我衣侵	모르겠네 서리 이슬 내 옷을 적시는지 ⁷⁴⁾

기각 시에서 몇 편 안되는 고시 중의 한 편이다. 맑은 가을 경치를 읊으면서 “다듬이질 다뒤편하고[爭擣衣]” 등의 쓸쓸한 가을 소리조차도 정겹게 그려낸다. 담박하기 “숨은 이의 마음 같다[幽人襟]”고 하며 좋은 친구들과 술 마시며 시 쓰기에 즐거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은근하게 숨은 이에 비겨놓고 있다.

西風淒淒吹雨來	가을바람 쓸쓸하게 비를 불러 오게 하니
排愁無如含酒杯	근심 물리치기는 술 한 잔만 한 게 없네
招邀隣朋巾角熱	이웃 벗을 불러 맞으니 두건 젖어 꺾인 채로
共賞庭畔菊花開	뜰 가에 핀 국화 감상 함께 하고 있네 그려 ⁷⁵⁾

이 시에서는 가을비의 쓸쓸함을 이웃 벗과 함께 떨치려고 술 마시며 국화꽃을 감상한다. 그러면서 비 오는데 오고가다 “두건이 젖어 꺾였다[巾角熱]”는 표현을 통해 실제로 비에 젖은 모습을 그리면서도 後漢 때의 훌륭한 인물 郭太가 비를 맞아 두건이 젖어 꺾이자 사람들이 앞 다투어 두건 귀퉁이를 꺾어 늘였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고아함을 모방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재치 있게 의미화하고 있다. 기각이 가을과 가을 경관을 통해 맑고 깨끗한 세계를 그려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가을과 비라는 제재를 쓰면서도 우울함이나 감상적인 정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74) 綺閣, 『綺閣閒筆』, 「215.추야우제 秋夜偶吟 古詩」

75) 綺閣, 『綺閣閒筆』, 「101.추일우중 秋日雨中」

다음은 「偶吟」이라는 제목으로 11편을 연작한 것이다.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모여 시 지으면서 노닐고 있는 모습을 읊고 있다.

積雨初霽白日晴	장맛비 이제 막 개어 밝은 햇살이 맑고
魚兒上川浮沈輕	물고기 냇가를 오르며 가볍게 잠겼다 떴다하네
西林風起神覺來	서쪽 숲에 바람 일어 정신 맑게 깨워주고
東嶺月出眼開明	동쪽 고개 달이 뜨니 눈이 밝게 열린다.
黃鶯烏燕皆得意	피꼬리와 제비 모두 저들 뜻을 얻었고
淸蟬雨蛙各自聲	매미와 개구리는 각자 제소리로 울어댄다
盛聞崔李兩大家	최진사와 이서방이 모두 대가란 말 듣는 이니
判非巖下老儒生	결코 바위 아래 늙은 유생 아니라네 ⁷⁶⁾

여름날 장맛비가 개어서 화창해진 경관 속에 온갖 경물이 때를 만난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서늘한 바람에 정신이 깨이고 맑은 하늘에 달이 밝아 눈이 환해지면서 때 만난 피꼬리 지저귀고 제비 자유롭게 나는 모습들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경물들에서도自得함이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자리 함께하여 시 읊고 있는 이들이 동네의 늙은 노인네가 아니고 모두 大家들이 모여서 놀고 있다는 것이다.自得을 넘어서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좋은 경관에 함께 모여 노닐다가도 한편으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듯 자신의 늙음과 여성으로 태어났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평생 절로 남아의 뜻 있으되 다만 안방 머리쓰게 여인네로 난 것 탄식하네[平生自有男兒志 只歎閨中巾幗垂]⁷⁷⁾ “가련하다 늦게 태어나 운수 불리하니 세상일이 나와 어긋나는 일 많구나[可憐晚出不利運 世事與我多相違]⁷⁸⁾ 등에서 갈등하는 맘이 보인다. 시 전반에서 여성이라는 느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인의 면모만 드러나 있는 편인데도

76) 綺閣, 『綺閣閒筆』, 「169. 우음 偶吟」

77) 綺閣, 『綺閣閒筆』, 「171. 기삼 其三」

78) 綺閣, 『綺閣閒筆』, 「172. 기사 其四」

연작시로 심회를 이어가다보니 이렇게 솔직한 심사가 군데군데에서 드러나 보인다. 유일하게 연대표시가 되어 있는 「230.자탄 갑인 춘의 작시 自歎」(1854년)에서 여성으로 태어남이룬 것 없음늬움, 그리고 고향그리움을 이백의 「將進酒」, 송지문의 「有所思」 등의 주요구절들을 인용하여 길게 고시로 읊고 있다.⁷⁹⁾

그러나 역시 좋아하는 경물과 함께 시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불평감을 씻어내고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한다.

… 前略 …

庭畔幽竹爲我友 뜰가의 깊은 대숲 내 친구 되어주니
不改清陰四時同 맑은 그늘 변함없이 사계절을 한결같다⁸⁰⁾

莫歎春去盡芳芬 봄이 가서 꽃향기 다했다고 한탄마라
窓前別有綠此君 창 앞에 따로이 푸른 대숲 있으니까

… 中略 …

笠屐翩翩佳朋會 대삿갓 나막신에 나는 듯이 멋진 벗들 모여서
樽酒相對細論文 술병의 술 마주하여 자세하게 글 논하네⁸¹⁾

사철 푸른 대숲을 친구삼아 그 곳에 모인 벗들과 술 마시며 글 논하며 지낸다고 한다. “대삿갓 나막신에 나는 듯이 멋진 벗들 모여서[笠屐翩翩佳朋會]”라고 읊을 만큼 서로 기분 좋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인 것이다. 「178. 기십 其十」에서 이런 벗들이 “재주꾼 시 짓는 이 남방 고을 다 모이니 머지않아 호사한 차림으로 서울에서 노닐리라[才子詩客會南州未久輕肥京洛遊]”고 하며 서울에서 노닐만한 才士들의 모임이라고 칭송

79) 綺閣, 『綺閣閒筆』, 「230.자탄 갑인 춘의 작시 自歎」 “天降我才必有用 古來賢哲皆勞心 恨爲女子又無成 頭髮星星誰能禁…中略…明月看從海上來 誰知曉向雲間沈 一朝臥病無相識 滔滔世情古猶今 心如浮雲無定處 從此遲遲故園尋”

80) 綺閣, 『綺閣閒筆』, 「173.기오 其五」

81) 綺閣, 『綺閣閒筆』, 「176.기팔 其八」

하며 자부하고 있다.⁸²⁾ 그래서 마지막 시에서 지금 이곳이 봉래산 같아서 서울의 벼슬아치들의 화려함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하였다.⁸³⁾

기각의 시에서 詠物詩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계절과 연관된 題材의 시들이다. 이들은 각 계절의 경관들을 담박하게 그려서 기각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적 감성보다는 일상에서 보이는 경물과 계절의 밝은 모습들을 그려서 보이는 대로 읊고 즐기는 시인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중에 자신과 시모임의 구성원들에 대한 칭송에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2) 유명시구로 제목한 시의 특징

기각의 247수의 시작품 중에는 중국의 유명시인들의 詩句를 제목으로 해서 七言絶句 형식의 시를 창작한 것이 47題 49首로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므로 그 의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李白 杜甫를 비롯하여 대부분 唐代의 시인의 詩句이고 魏 曹操, 宋 王安石 魏野, 元 古玉 등의 작품과 古詩와 樂府詩歌, 推句에서도 제목을 취했다. 모두 27명의 작가의 시에서 유명한 구절을 취해서 시 제목으로 삼았는데, 五言시의 구절을 제목으로 하고도, 七言絶句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창작하였다는데서 短型的 시형식의 습작 경험과 주변 여성시인들과의 공유를 위한, 함께 외우기 쉽고 노래 부르기 편리한 시형의 선택이었을 것이라 추정해본다.⁸⁴⁾

기각은 이 유명한 시인들의 시 구절에서 주제를 끌어와서 자신의 한시 습작 욕구도 충족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적 능력을 드러내고

82) 본고 “2. 문학적 배경과 문학의식” pp.19~21에 자세하게 서술하였음

83) 綺閣, 『綺閣閑筆』, 「179. 기십일 其十一」 “詩能寫景隨意吟 書爲遣閑和睡看 每憶蓬壺駕雲鶴 不羨五陵繡花鞍 시는 경치 그럴만 해 맘 가는대로 읊조리고 책은 한가함을 푸느라고 즐기며 본다 늘 봉래산서 구름과 학 타던 것을 생각하니 오릉의 꽃수 놓은 말안장이 부럽잖다”

84) 본고 “Ⅲ. 題材별로 본 綺閣의 시세계 1. 詩作品 概觀” pp.22~23 참조

자 하는 욕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백, 두보, 錢起, 白居易 등의 시구를 3번 이상 차용하였는데 좋아하는 시인들의 다양한 정감을 체험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감을 표현해보는場이기도 한 것 같다.

두보의 「絕句」시 중 한 구절을 취한 「139.山青花欲燃」시는 “눈에 비친 붉은 빛 온통 취할 듯 활활 타는 불꽃인데 연기 없구나[照眼紅光渾欲醉如火焰焰但無煙]⁸⁵⁾”라고 하여 원작자의 鄉愁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비적 경관묘사와는 다르게 봄날 고운 경치묘사에만 집중해서 재치를 부려 표현한다.

… 前略 …

霜後木落百草萎	서리 내려 나뭇잎 지고 온갖 풀 시드는데
東籬黃花獨有芳	동쪽 울타리 노란국화 홀로 꽃향기 나네
山靜寒松如有聲	산 고요해 찬 소나무 소리 내는 듯
夜深瘦竹自生涼	밤 깊으니 야윈 대숲 절로 기운 서늘하다
天孫河鼓遙相望	견우성 직녀성은 서로 멀리 바라보나
銀漢西流無橋梁	은하수 서쪽 흘러 건널 다리 없구나
如此良宵不遊何	이렇게 좋은 밤에 어찌 놀지 않으리오
露華月光滿屋樑	이슬 내려 달빛이 집 들보에 가득하네 ⁸⁶⁾

王勃의 「秋夜長」에서 변방에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 전반의 내용과는 달리 “月明白露澄清光”이라는 구절에서 가을날의 맑고 담박한 기운을 주제로 시를 읊고 있다. 기각 자신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담박하게 그리는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 여러 시인들의 다양한 題材선택과 정감들을 경험하면서 재치 있게 자신의 시 짓기 방식으로 창작하는 시인 의식이 엿보인다.

한편으로는 같은 王勃의 「秋夜長」에서 가져온 「221. 위군추야도의상 爲

85) 綺閣, 『綺閣閒筆』, 「139.산青花欲燃 山青花欲燃」 임치균·부유섭·강문종 역주, 앞의 책(2015)에서 시구를 제목으로 차용한 원작자와 원시를 각주에 제시함

86) 綺閣, 『綺閣閒筆』, 「214.월명백노증청광 고시 月明白露澄清光 古詩」

君秋夜搗衣裳」에서는 원작자의 정감을 그대로 차용하여 기각 자신의 시 짓기 방식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정감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주로 樂府詩에서 詩題를 빌려온 작품들에서 그리움의 정감을 보이는데, 金昌緒의 「春怨」, 王昌齡의 「閨怨」 岑參 「春夢」⁸⁷⁾ 등 악부시 주제로 남성들의 입을 빌어 여성의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작품들을 차용하였다.

小婦閨中欲斷腸	젊은 여인 안방에서 애가 끊어지는 것은
夫婿萬里送封侯	벼슬살리 지아비를 만리 멀리 보냈기 때문
百花開盡君不來	온갖 꽃들 폼다 저도 그대 돌아오지 않으니
正逢佳節獨登樓	바로 좋은 계절 만나면 홀로 누대 오른다네 ⁸⁸⁾

여성의 입으로 읊지 못하는 울음을 남성이 대변하는 노래들이 더 가슴을 울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각 역시 스스로 창작하는 시들에서는 몇 군데 찾아보기 어려운 감정들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기각의 시 중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나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생애’부분을 논할 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사랑, 그리움 등의 정감을 표현한 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정감들이 여기 유명시인의 시 구절을 차용해서 쓴 경우에만 보이므로 적지 않은 시들에서 내재된 자기 감정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

愁多倦開照面鏡	근심 많아 얼굴 비치는 거울 게을리 열고
窈結漫拋畫眉筆	원이 맺혀 눈썹 그리던 붓 부질없이 던져버리네
緣何紅顏太憔悴	어제서 고운 얼굴 이리도 초췌한가
腰帶自寬不勝衣	허리띠가 절로 남아 옷을 이기지 못하네 ⁸⁹⁾

87) 綺閣, 『綺閣閒筆』, 「59.막교지상제 莫教枝上啼」 「90.회교부서떡봉후 梅教夫婿覓封侯」 「91.우 又」 「92.행진강남수천리 行進江南數千里」

88) 綺閣, 『綺閣閒筆』, 「91.우 又」

89) 綺閣, 『綺閣閒筆』, 「89.자연의대완 自然衣帶緩」

東方虬의 「王昭君」에서 “自然衣帶緩”을 제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변방 오랑캐 땅으로 끌려간 왕소군의 맘을 대변해서 절절한 감성으로 읊고 있다. 이렇게 宮詞에 등장하는 王昭君·班婕妤 같은 미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시에서 아름다움과 안타까움을 대변하면서 여성적 정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인다. 李白이 「清平調詞」에서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시에서 차용한 「87.춘풍불함노화농 春風拂檻露華濃」에서 “오직 그대만이 봄천제의 총애 입었기에 꽃다운 향기 홀로 온갖 꽃 중의 최고로다[惟汝擅被東皇寵 芳香獨步百花頭]”라고 읊으면서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百花頭”에 비겨서 따뜻한 여성의 눈길로 그려놓고 있다.

朝日香爐映瀑布	아침 햇살 향로봉 폭포에 비추니
翠碧飛流倒長川	푸른 절벽 긴 냇물이 꺼꾸러져 나는 듯 흘러
噴如急雨響如雷	뿌기는 급한 비 같고 소리는 우레 같아
疑是玉龍登九天	아마도 옥룡이 구천에 오르는 듯하네 ⁹⁰⁾

金鞭一舉如電馳	금빛 채찍 한번 드니 번개처럼 달려가서
不借輕輪却能飛	가벼운 날개 빌리지 않아도 되려 나는 듯
草頭一點自生風	풀 끝 한 점에 절로 바람 생겨나니
蒼鷹向後猶嫌遲	푸른 매가 뒤에 있어도 더딜까 걱정한다 ⁹¹⁾

위의 두 시는 이백의 「望廬山瀑布」와 岑參의 「衛節度赤驃馬歌」에서 제목을 차용

하였다. 기각은 창작시에서도 동물 특징에 맞추어 실제로 눈앞에 보는 듯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과 기상을 그려놓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도 원시가 가지는 장쾌함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역동적이면서도 과장된 표현을 통해 폭포의 장쾌한 모습과 천리마의 나는 듯 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의 묘를 살려 자신의 역동적 기상을 드러내려는 욕

90) 綺閣, 『綺閣閒筆』, 「84.요간폭포괘당턴 遙看瀑布掛長川」

91) 綺閣, 『綺閣閒筆』, 「117.각사창응변향후 却使蒼鷹飜向後

구를 좀 더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다.

기각은 자신의 창작시에서는 일상에서 보이는 사물들을 내적 속성을 포착해서 재치 있게 표현하거나 자연 경관들을 밝고도 담박하게 그렸다. 반면에 유명시인들의 시 구절을 제목으로 차용한 시에서는 자신의 시적 특성을 살려 재치를 부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시 습작을 통한 다양한 시적 정감을 좀 더 자유스럽게 표출하고자 하는데서 그 특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작품들이 지어진 주기를 보면 작품 편차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시작한 띄엄띄엄 자신의 작품들과 섞여 있다가 「81.천저도화홍 泉底桃花紅」부터는 93번 詩까지 11편이, 104번~119번 詩까지 13편, 130번~145번 詩까지 11편이 이어지고 있다. 「罷接」시에서 보듯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다면 더욱 그런 시점들에서 습작하면서 동료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유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보면 기각의 시문집을 『기각한필』이라고 詩話의 성격이 강한 “閒筆”의 이름을 붙인 것은 시 짓기의 일상화와 시 모임 활동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결론

본고는 여성작가 綺閣의 한시작품 『綺閣閒筆』 분석을 통해 19세기 여성작가들의 활동상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조선의 신분제는 여성에게 긍정하지 않았고, 여성작가들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이 출판되거나 구전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한문학사에서 뛰어난 여성작가들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하였기에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綺閣閒筆』이라는 자료의 발굴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한글 필사본 『기각한필』에는 총 247수의 기각의 시가 실려 있다. 『기각한필』 수록 시들은 분명 한자로 지은 漢詩이지만 한문 원문이 전혀 적혀 있지 않고 한글로만 필사되어 있다. 제목·제목에 대한 풀이·본문·해석이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한시를 한글음사방식으로만 기술한 『기각한필』의 형태는 기존 여성시인들의 한시문집과는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18세기 이후 여성문인들에게서 보이는 또 다른 문학향유 방식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여성문학 활동상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연구 텍스트로 삼은 『기각한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로,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漢詩로 복원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개별 시 작품의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기각의 생애와 시적 특징을 재구성하고자 하였고, 이후 연구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19세기 사대부 여성들의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학 활동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세밀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몰연대가 상세하지 않지만 19세기 여성시인의 활동이 다양했던 시기에 한글음사 방법을 통해 한시를 공유하고자 했던 기각의 활동상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시를 한글 음으로 적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식은 18세기 초에 의령 남씨의 『의유당유고』와 19세기 청송 심씨의 『호연재유고』에서 이미 그 상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서영수합, 남정일헌, 기각의 조카로 추정되는 김금원 등의 여성 시인들의 시작활동이 활발하면서 한시문집을 간행하기도 하여 여성들의 문학향유 방식이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오빠를 비롯한 靑陽 고을의 주변 남성 시인들과의 교류 모임에서 기각이 여성으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를 창작할 수 있었다는데서 여성시인의 일상화된 시 짓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각의 시세계의 특징은 題材별로 분류하여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읊었다고 여겨지던 작품들에서 사물의 내적 속성을 재치 있게 詩化한 詠物詩와 자연의 외적 묘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밝은 심경을 투영한 景

物詩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로 七言絶句 형식의 시를 작시함으로써 여성시인들과 함께 공유하며 감상하고자 한 배려도 보인다. 또한 옛 시인들이 지은 시구를 제목화한 작품들에서는 作詩의 형식을 배우려는 의지와 옛 시인들의 감성을 체득하면서 다양한 정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면모가 기각의 시인으로서의 창작 의지에 기인한 것임도 드러났다. 기각은 다양한 題材의 시화를 통해 시적 재치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고, 다양한 감성의 체득 및 공유를 통해 여성시인으로서의 자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시인 개인의 詩才 표출과 정감 표현의 욕구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대상 시들을 단순한 습작으로 평가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기각의 247수의 한시에 밀착해서 살핀 결과, 그녀 시의 특징이 소소한 '일상'에 대한 관심과 시 '창작' 활동 자체에 대한 자부심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게다가 한시를 한글음사방식으로 편집한 것은 여성독자와의 공유를 위한 배려로서 이것은 19세기 여성시인들의 창작활동의 적극성과 일상적 향유의 면모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문집을 『기각한필』이라고 詩話의 성격이 강한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기각의 이러한 시세계 특징과 시인으로서의 의식은 19세기 여성시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 文獻〉

-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洪顯周, 『海居齋詩鈔』.
高八美, 「중국근체시법론(절구)」, 『中國學』 第29輯, 대한중국학회, 2007.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김여주,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Ⅱ-金錦園의 詩와 文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여성 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令壽閣 詩의 美的 特質」, 『漢文古典研究』 제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_____, 「南貞一軒 詩세계의 특징」, 『漢文古典研究』 제3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류준경, 「『의유당 유고』의 형성배경과 문학사적 가치」, 『한국한문학연구』 제61집, 한국한문학회, 2016.
문희순, 「同春堂 宋浚吉家の 여성문학 전통과 문화사적 의의 - 김호연재와 청송심씨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문화연구, 2013 .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재유고』」, 『한국고전여성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부유삼강문중, 「『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서경희, 「『의유당유고』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감성과 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5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藏書閣』 제7집, 2002.
임치균부유삼강문중 역주, 『기각한팔-조선 시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Female Literature Activity of the 19th Century through 『Gigak hanpil(綺閣閒筆)』

Kim Yeaju*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activities of the female writers in the mid 19th century through an analysis of 『Gigak hanpil』, a Chinese poetry work by a female writer Gigak (綺閣). The caste system of Chosen was not fair to women and the activities of female writers were limited,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for their works to be published or orally passed down. Nevertheless, outstanding female writers in the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existed in every era, which is why we can't slow down the study, and the discovery of 『Gigak hanpil』 is highly valuable from this perspective.

In the Hangul-transcribed version of 『Gigak hanpil』 are listed 247 poems of Gigak. Each poem in 『Gigak hanpil』 is definitely a Chinese poem composed in Chinese characters, but transcribed in Hangul only without the original text in Chinese characters written. It means that the title, the explanation on the title, body and interpretation are all in Hangul only. For example, a poem meaning "Returning to Nosung" was transcribed as "환노성", not as "還魯城". 『Gigak hanpil』 whose form wrote Chinese poems only in the Hangul-phonetic way stands out against Chinese poetry collections of other female writers and calls for our attention. This was a part of another way of enjoying the literature, observed among female writers after the 18th century, a study on which can be said to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understanding the female literature activity at that time.

The 『Gigak hanpil』 we used as a study text in this paper is a material own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angseogak", which intactly followed the restored works into Chinese characters by precedented researchers. A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argu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8.

**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 yjkim@sungshin.ac.kr

to lie in that it tried to re-construct Gigak's life and poetic characteristic by focusing on her individual poems as well as to look at the common yet various literature activities of the noble women in the 19th century by further extending the scope of the study. As we continued this research using a minute analysis tool, we could study Gigak's activity which attempted to share Chinese poems through a Hangul-transcription method in the time when the activities of 19th century's female poets varied although when they were born and died are mostly not clear. We could also observe her natural everyday life of composing poetry in her friendly meetings with close male poets including her brother.

We categorized the characteristic of her poetry world by subject material, beginning with the works considered to simply write about subjects before her eyes, then dividing our analysis between object poetry(詠物詩) which wittily turned the internal nature of objects into poems and scenery poetry(景物詩) which projected her cheerful mind through an external description of the nature. What was also observed was her care to share and appreciate with other female poets by mainly composing in the form of Chilun jeolgu (七言絕句) a quatrain with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From her works using lines written by old poets as titles, we could tell her attempt to master the form of poetry composition as well as the fact that Gigak's efforts to learn old poets' sentiment and actively express her diverse feelings were resulted from her creative will as a poet.

Gigak attempted to effectively reveal the poetic sense by turning a variety of subjects into a poem while showing her pride as a female poet through mastering and sharing various feelings. This connects with the display of her poetic talent as an individual poet and her desire to express feelings, allowing us to break away from the previous view to regard her works as simple poetry studies and re-evaluate them. Based on a close study on her 247 Chinese poems, it came to light more vividly that the characteristic of Gigak's poetry was boiled down to her attention to the trivial "daily life" and the pride for the poetry "composition" itself. Besides, the fact that she edited Chinese poems in the Hangul-phonetic method showed she cared to share with female audience, which is aligned with the daily enjoyment and the initiative in creative activities of female poets in the 19th century. We expect this to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in understanding

the female poets of that time.

【Key words】 Gigak(綺閣), Gigak hanpil(綺閣閒筆), Hangul-transcribed version,
the female literature activity of the 19th century

투고일 :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12월 15일